

영문학 연구의 반성경적 전환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분석*

The Anti-Biblical Shift in English Literary Studies and a Critical Analysis of Gender Ideology

현 숙 경 (Sook Kyong Hyun)**

ABSTRACT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paradigm shift in English literary studies,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Judith Butler's gender theory. Butler's concept of gender performativity has significantly reshaped literary criticism, challenging traditional gender binaries and emphasizing the social construction of identity. This paper explores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gender performativity, its impact on literary canon revision, and its intersection with feminist and queer theory. While Butler's work has contributed to expanding perspectives in literary studies, this study also highlights its theoretical limitations, particularly its neglect of biological sex and the instability it introduces to identity formation. Additionally, the paper critiques the broader sociocultural consequences of dismantling normative gender structures. Through a balanced analysis, this research aims to assess both the contributions and the challenges posed by Butler's gender theory within literary studies, arguing for a nuanced approach that considers both social constructs and inherent human identity.

Key words: gender performativity, Judith Butler, English literary studies, queer theory, gender ideology

* 2025년 2월 11일 접수, 3월 3일 최종수정, 3월 5일 게재확정.

** 한국침례신학대학교(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Seminary) 실용영어학과 교수, 대전시 북유성대로 190, sookkhyun@kbtus.ac.kr

I. 서론

영문학 연구는 오랫동안 텍스트의 내적 구조와 미적 가치를 탐구하는 전통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형식주의와 신비평 같은 방법론은 문학 작품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예술로 간주하며, 이를 통해 보편적 진리와 인간 경험을 발견하고자 했다. 셰익스피어나 밀턴 같은 작가들의 작품은 이러한 관점에서 고전적이고 영속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며 문학 연구의 중심에 자리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며, 영문학 연구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법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후기구조주의 등의 비판적 이론들이 대두되면서, 문학은 단순한 미학적 대상에서 사회적 규범과 권력 구조를 비판하는 도구로 재구성되었다. 이 흐름 속에서 젠더 이론(Gender Theory)은 문학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이 전환을 주도한 대표적인 학자로 평가된다. 그녀의 젠더 수행성(gender performativity) 개념은 젠더와 성적 정체성이 생물학적 기초가 아닌, 사회적·문화적 규범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는 논리를 통해, 전통적인 성별 개념과 젠더 이분법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려 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 이후의 영문학 연구는 문학을 독립적인 예술 작품이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이념을 반영하고 재구성하는 매체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강화했다. 문학 텍스트는 더 이상 보편적 진리를 탐구하거나 인간 경험의 초월성을 반영하는 도구로 간주되지 않고, 특정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기존 규범을 전복하는 수단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문학 연구가 가진 미학적 깊이와 상징적 의미를 축소시키고, 정치적 이념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본 논문에서는 버틀러의 젠더 이론을 중심으로,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이 영문학 연구에 미친 영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젠더 이론이 문학 연구의 초점과 가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초래한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문학 연구가 본연의 예술적 깊이와 보편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며, 성경적 관점을 통해 이러한 전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패러다임 전환: 기존 정전 중심 연구에서 비판적 이론으로

1. 전통적인 정전(Canon) 중심 연구: 패러다임 전환 이전

영문학 연구는 오랫동안 문학의 미적 가치와 보편적 인간 경험을 탐구하는 전통적 접근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연구의 핵심은 ‘정전’이라 불리는 특정 작품들을 문학의 중심으로 삼는 것이었다.

정전은 주로 셰익스피어(Shakespeare), 밀턴(Milton), 디킨스(Dickens)와 같은 서구 백인 남성 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작품은 보편적 진리와 인간 경험을 반영하는 문학의 정수로 평가되었다(Wellek & Warren, 1949). 이 시기의 문학 연구는 이러한 작가들의 작품을 고전적이고 영속적인 가치의 산물로 간주하며, 학문적 분석과 교육의 중심에 두었다.

특히, 이 시기의 문학 연구는 텍스트 자체의 내적 구조와 언어, 미적 가치를 강조한 형식주의(Formalism)와 신비평(New Criticism)의 방법론에 의존했다. 신비평은 문학 작품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예술로 강조하며,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배제하고 텍스트 자체의 구조와 언어를 통해 의미를 이해하려는 접근 방식을 취했다. 클린스 브룩스와 로버트 펜 워렌(Cleanth Brooks & Robert Penn Warren)은 *Understanding Poetry*에서 “시는 분명 삶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삶과 세계의 살아있는 충만함과 관계되어 있다”(Brooks & Warren, 1938: 9)고 주장하고, 작품을 외부적 요소(예: 작가의 의도나 독자의 반응)로부터 독립된 단위로 간주했다.

이러한 연구 방식은 작품의 미적 완결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며, 문학을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를 담고 있는 예술로 평가했다. 예컨대, 윌리엄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의 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보편적 관점에서 탐구하였고, T. S. 엘리엇(T. S. Eliot)의 *The Waste Land*는 현대인의 영적 공허와 위기를 묘사함으로써 “보편적 인간 경험”(Wellek & Warren, 1949: 3)이라는 개념을 반영하려 했다.

이러한 정전 중심의 연구는 작품의 미적 가치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시대를 초월한 진리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정전의 선택 기준이 백인, 서구, 남성 중심적 시각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여성 작가, 비서구 작가, 소수 집단의 목소리는 배제되었다. 정전이 특정 계층과 문화를 대표하면서 이를 문학의 보편적 기준으로 간주한 것은, 문학을 다양한 사회적 맥락과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았다.

더불어, 형식주의와 신비평은 작품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예술로 이해하려는 접근법을 취했지만, 텍스트가 생성된 사회적·역사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예컨대, 신비평은 문학이 특정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논의하지 않고, 작품의 미학적 완결성만을 강조했다는 것이다(Jameson, 1981: 17-23 ; Bloom, 1994: 20-25). 이는 문학을 보다 넓은 사회적·정치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를 제한하며, 문학이 가진 사회적 역할을 축소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주의와 신비평에 기반한 문학 연구는 1960년대 이후 등장한 새로운 비판적 이론들에 의해 강하게 도전받게 된다. 페미니즘 비평, 탈식민주의, 마르크스주의, 후기구조주의 등은 기존 정전의 백인 남성 중심성과 텍스트 자율성에 대한 신화를 비판하며, 문학 연구가 작품의 미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 맥락과 권력 구조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전통적 정전 중심 연구는 이후 문학 연

구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2. 패러다임 전환: 1960년대 이후의 변화

(1) 기존 정전에 대한 비판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영문학 연구는 전통적인 정전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 시기는 시민권 운동, 여성 해방 운동, 탈식민지화, 반전 운동 등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러한 흐름은 문학 연구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문학은 더 이상 순수한 미적 가치를 지닌 텍스트가 아니라, 사회적 모순과 권력 구조를 드러내고 비판하는 도구로 재인식되기 시작했다.

특히, 기존 문학 정전이 백인, 서구,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형성되었다는 비판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같은 비판은 페미니즘 비평(Feminist Criticism),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 마르크스주의(Marxism) 등의 학문적 흐름 속에서 구체화되었으며, 정전의 범위를 확장하고 기존 연구에서 배제된 목소리를 포함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캐서린 벨시(Catherine Belsey)와 제인 무어(Jane Moore)는 *The Feminist Reader*에서 기존 문학 정전이 가부장적 시각을 반영하며, 여성의 목소리를 억압해 왔다고 지적했다(Belsey & Moore, 1997: 2). 그들은 여성 작가의 작품을 재발견하고, 문학 연구에서 배제되었던 여성의 경험과 젠더 권력 관계를 학문적 담론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레이몬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Marxism and Literature*에서 기존 문학 연구가 ‘고급 문화(high culture)’로서의 문학만을 강조하며, 대중문화와 노동 계급의 문학적 표현을 배제했다고 비판했다(Williams, 1977: 121). 그는 문학이 단순한 심미적 분석 대상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 계급의 경험과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윌리엄스는 기존 정전이 상류 계급의 가치와 미적 기준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노동 계급의 문학적 표현은 평가 절하되거나 아예 연구 대상에서 배제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문화 연구(Cultural Studies)의 발전에 기여하며, 기존 정전의 권위를 재검토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또한, 헨리 루이스 게이즈 주니어(Henry Louis Gates Jr.)는 아프리카계 미국 문학을 정전의 일부로 인정받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The Signifying Monkey*에서 흑인 문학이 독자적인 전통을 형성하고 있으며, 기존 백인 중심적 정전에서 배제된 채 주변부로 밀려났다고 주장했다(Gates, 1988: 14). 게이즈는 흑인 문학의 해석을 위해 아프리카계 구술 전통과 서구 문학의 관계를 분석하며, 문학 연구가 기존 서구 중심적 정전 개념을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아프리카계 미국 작가들의 작

품을 포함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며, 문학 연구에서 인종과 정체성의 문제를 더욱 중점적으로 다루게 했다.

이처럼 1960년대 이후의 문학 연구는 기존 정전의 권위적 관점을 넘어서고,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려는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문학은 단순한 예술적 가치의 논의를 넘어, 권력과 억압의 구조를 비판하고 소외된 목소리를 조명하는 학문적 도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

(2) 문학을 사회 비판의 도구로 활용

1960년대 이후, 문학 연구는 기존의 미학적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적 모순과 권력 구조를 드러내고 이를 비판하는 도구로서 문학을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했다. 문학은 단순히 예술적 즐거움을 제공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억압을 드러내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매체로 이해되었다.

윌리엄스는 문학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동시에 이를 비판하고 대안적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학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생성되고 작동한다”(Williams, 1977: 128)고 강조하며, 문학 텍스트를 단순한 개인적 창작물이 아니라 사회적 과정과 깊이 연관된 산물로 보았다. 따라서 문학은 단순한 미적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 구조를 분석하고 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버틀러는 *Gender Trouble*에서 문학이 젠더와 성적 정체성을 탐구하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젠더와 섹슈얼리티는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수행되는 것”(Butler, 1990: 33)이라고 주장하며, 문학이 젠더의 고정관념을 해체하고 이를 사회적 구성물로 드러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은 *Beloved*를 통해 노예제의 역사와 흑인 여성의 억압 경험을 재조명하며, 문학이 침묵 속에 묻힌 목소리를 되살리는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녀는 “문학은 억압받는 자들의 목소리를 복원하고, 침묵 속에 묻힌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Morrison, 1993: 3)고 언급하며, 문학이 지배 담론에 도전하고 대안적 내러티브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문학은 기존의 권력 구조와 사회적 불평등을 비판하는 동시에, 새로운 관점과 가능성을 열어주는 매체로 자리 잡았다. 이는 문학 연구가 단순히 텍스트 자체를 분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문학이 맺고 있는 사회적·문화적 관계망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3) 후기구조주의와 탈식민주의의 부상

1960년대 이후,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ralism)와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는 문학 연구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으며 텍스트와 담론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후기구조주의는 텍스트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독자의 해석과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동시에 탈식민주의는 서구 중심의 문학 담론이 가진 편향성과 배타성을 비판하며, 비서구적 관점과 목소리를 문학 연구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강화했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Of Grammatology*에서 텍스트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독자의 해석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Derrida, 1976: 18). 그는 언어와 텍스트가 독자의 해석을 통해 새롭게 구성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기존의 권위적인 의미 체계를 해체했다.

한편, 에드워드 사이드는 *Orientalism*에서 문학이 단순한 미학적 즐거움을 위한 산물이 아니라, 권력과 지식이 상호작용하여 만들어진 담론임을 지적한다. 그는 서구 문학이 동양을 “타자화”하면서 제국주의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비판하며, “문학은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자, 그것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Said, 1978: 6)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비판을 통해 그는 기존 정전의 서구 중심성을 해체하고, 비서구적 문학을 학문적 담론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식민주의적 논의를 이어받은 호미 바바(Homi Bhabha)는 *The Location of Culture*에서 탈식민적 텍스트가 문화 간의 하이브리드성을 드러낸다고 설명한다. 그는 “탈식민적 문학은 기존의 문화적 경계를 재설정하고, 새로운 혼합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간을 창출한다”(Bhabha, 1994: 12)고 보았으며, 문학이 지배 서사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는 실 질적인 문학 작품에서도 잘 드러난다. 치누아 아체베(Chinua Achebe)는 그의 소설 *Things Fall Apart*에서 식민주의가 아프리카 공동체와 문화에 미친 영향을 생생히 그려내며, 서구적 시각에 맞서 아프리카인의 목소리를 담아냈다(Achebe, 1958). 아체베는 문학을 서구의 왜곡된 관점을 바로잡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경험을 조명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후기구조주의와 탈식민주의는 문학이 단순한 예술적 표현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III. 젠더 이론의 도입과 그 영향

1. 젠더 이론의 도입 시기와 맥락

젠더 이론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 본격적으로 영문학 연구에 도입되었다. 이 시기는 사회적·문화적 변화가 가속화된 시기로, 페미니즘 운동, 젠더 평등 논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문학 연구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던 때였다. 1960년대의 페미니즘 제2물결은 단순히 여성의 법적 권리 증진을 넘어, 가부장제, 젠더 불평등, 성적 억압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젠더’라는 개념이 문학 연구에서도 중요한 분석 틀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젠더 이론은 생물학적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며, 젠더가 단순한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규범에 의해 구성되는 수행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는 *The Second Sex*(1949)에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Beauvoir, 1949: 283)라고 주장하며, 젠더 정체성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녀의 논의는 이후 젠더 이론이 문학 연구에 도입되는 데 중요한 사상적 배경을 제공했다.

1970년대 이후, 젠더 이론은 문학 연구에서 기존의 정전 중심 연구를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며, 여성과 성소수자의 문학적 위치를 재조명하는 데 기여했다. 기존의 백인 남성 중심적 정전 비판, 후기구조주의의 의미 해체, 탈식민주의의 타자성 논의 등은 젠더 이론이 학문적 담론으로 정착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젠더 이론은 단순한 비평적 접근이 아니라, 문학과 문화 연구의 근본적인 틀을 변화시키는 학문적 전환점이 되었다.

2. 젠더 이론의 주요 발전

(1) 페미니즘 문학 비평: 젠더 이론의 출발점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페미니즘 문학 비평은 젠더 이론의 출발점으로 자리 잡았다. 페미니즘 문학 비평은 문학 텍스트가 여성의 경험을 어떻게 재현하는지, 젠더 불평등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는지 탐구하며 기존 문학 연구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케이트 밀렛(Kate Millett)의 *Sexual Politics*는 페미니즘 문학 비평의 기초를 놓은 중요한 저작으로, 문학 텍스트에서 젠더와 성 정치(sexual politics)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Millet, 1970). 밀렛은 남성 작가의 작품에서 여성 캐릭터가 종종 대상화되거나 억압된 방식으로 묘사된다고 비판하며, 문학이 가부장적 질서를 재생산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녀의 주장은 이후 문학 연구

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복원하고, 문학이 권력 관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분석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애드리언 리치(Adrienne Rich)는 *Compulsory Heterosexuality and Lesbian Existence* (1980)에서 ‘강제적 이성애(compulsory heterosexuality)’ 개념을 제시하며, 문학과 문화 속에서 여성의 성적 정체성이 어떻게 억압받아 왔는지 비판했다. 그녀는 이성애가 자연스럽게 필연적인 것처럼 강요되는 사회적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학 연구에서 비이성애적 여성 경험을 재조명할 필요성을 강조했다(Rich, 1980: 648-650).

이 시기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은 문학 텍스트에서 여성의 억압을 드러내는 작품들을 재발견하고 재해석했다. 예컨대, 샬럿 퍼킨스 길먼(Charlotte Perkins Gilman)의 *The Yellow Wallpaper*는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여성의 정신적 억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문학이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를 어떻게 침묵시키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Gilman, 2017). 길먼은 작품의 마지막 문장에서 “I’ve got out at last . . . in spite of you and Jane. And I’ve pulled off most of the paper, so you can’t put me back!”(Gilman, 2017: 15)라고 서술하며,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억압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2) 퀴어 젠더 이론의 발전: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

1990년대 이후, 버틀러의 *Gender Trouble* 출판은 젠더 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버틀러는 젠더가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에 의해 구성되고 반복적 수행을 통해 형성된다는 ‘젠더 수행성’ 개념을 제시했다. 그녀는 “젠더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끊임 없이 반복되는 수행의 결과로 나타난다”(Butler, 1990: 25)고 주장하며, 젠더와 성적 정체성이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임을 강조했다.

버틀러의 이론은 문학 연구에서 젠더 표현의 복잡성을 탐구하고, 전통적인 젠더 이분법을 해체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녀의 작업은 문학 텍스트가 젠더 규범의 경계를 넘어 성적 다양성과 유동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새로운 틀을 제공했다. 예를 들어, 퀴어 이론은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와 같은 동성애 성향 작가들의 작품을 재조명하며, 이들이 젠더와 성적 규범을 전복하는 방식으로 문학적 내러티브를 구성했음을 강조했다.

3. 젠더 이론이 문학 연구에 미친 영향: 비판적 고찰

젠더 이론은 문학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기존 백인 남성 중심의 정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여성과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조명하려는 시도를 촉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문학의 미학적·보편적 가치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페미니즘 비평과 퀴어 젠더 이론은 문학 텍스트를 이념적 관점에서 해석하며, 텍스트를 사회적 억압과 권력 구조의 재현으로 환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문학 연구가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방향으로 치우치게 만들었으며, 문학 작품이 지닌 본래적이고 초월적인 미학적 가치와 문학적 형식에 대한 논의를 소홀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다음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개념은 젠더와 성적 정체성을 지나치게 유동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간주함으로써, 문학 연구에서 객관성과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접근은 젠더가 단순한 사회적 수행의 결과라면,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젠더 이론의 한계를 드러냈다.

젠더 이론이 문학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문학 연구는 종종 이념적 도구로 사용되거나 특정한 정치적·사회적 입장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이는 문학 연구가 전통적 가치를 기반으로 보편적 인간 경험을 탐구하는 학문적 전통에서 벗어나, 특정 이념적 틀에 갇히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젠더 이론을 적용한 문학 연구가 보다 학문적 균형을 유지하며, 이론적 깊이와 문학적 가치 모두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IV.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이론

1. 이분법적 젠더 해체와 젠더 개념의 확장

버틀러의 젠더 이론은 기존의 이분법적 젠더 개념을 해체하고, 젠더 정체성의 유동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녀는 *Gender Trouble*의 1999년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나는 특정한 형태의 젠더 표현을 거짓된 것, 혹은 파생된 것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다른 형태의 젠더 표현을 진리(truth), 혹은 원래의 형태(original)로 규정해버리는 진리의 체제들에 반대했다. ... 본 저서의 목적은 특정한 형태의 젠더만 실재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젠더에 대한 가능성의 영역을 여는 것이었다.(Butler, 1999: viii)

이와 같은 주장은 젠더를 단순한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체계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비이성애적 젠더와 성적 정체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버틀러는 젠더가 생물학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담론과 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몇 가지 논란을 야기한다. 첫째,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단순한 사회적 구성물이 아니라, 생물학적 요소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호르몬, 유전자, 뇌 구조 등 생물학적 차이는 젠더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사회적 수행 행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배런-코헨(Baron-Cohen, 2003)은 *The Essential Difference: Male and Female Brains and the Truth About Autism*에서 “The female brain is predominantly hard-wired for empathy. The male brain is predominantly hard-wired for understanding and building systems.”(Baren-Cohen, 2003: 1)라고 주장하며, 남성과 여성의 뇌 구조가 선천적으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젠더 정체성이 전적으로 사회적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신경학적 차이에 기반한 선천적 요인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젠더 체계를 억압적 구조로 단순화할 경우, 젠더 개념이 모호해지고 사회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젠더 개념의 해체는 가정, 생식, 사회적 안정성과 같은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나치게 유동적인 젠더 개념은 정체성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드레거(Dreger, 2008)는 *One of Us: Conjoined Twins and the Future of Normal*에서 “We should be cautious in promoting the idea that gender is entirely fluid, as this can have unintended consequences for legal, medical, and social policies.”(Dreger, 2008: 145)라고 경고하며, 젠더 개념이 지나치게 유동적으로 해석될 경우 법적, 의료적, 그리고 사회적 정책에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와 유사하게, 우드와 이글리(Wood & Eagly, 2012)는 *Biosocial Construction of Sex Differences in Behavior*에서 “Although gender roles evolve over time, they are still deeply embedded in the social structures that contribute to stability and cohesion in human societies.”(Wood & Eagly, 2012: 55)라고 주장하며, 젠더 역할이 사회적으로 변화할 수 있지만, 이는 인간 사회의 결속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완전히 해체될 경우 사회적 질서가 흔들릴 수 있음을 강조한다.

2. 생물학적 성을 배제한 젠더 수행성 개념

버틀리의 핵심 개념인 ‘젠더 수행성’은 생물학적 성(sex)을 배제하고, 젠더를 사회적 수행 행위의 결과로 이해한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젠더적 표현 뒤에 젠더 정체성이란 것은 없다; 젠더 정체성은 소위 정체성의 결과물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표현’에 의해 수행적으로 구성된다”(Butler, 1999: 33). 즉, 젠더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반복되는 수행 행위를 통해 구성된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이성애 중심적 젠더 규범은 사회적으로 강요된 반복적 수행의 결과일 뿐이며,

새로운 젠더 정체성은 비이성애적 성적 표현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생물학적 성을 배제하는 것은 과학적 연구와 배치될 수 있다. 젠더가 수행적 행위만으로 구성된다고 볼 경우, 신경학적 요소나 생물학적 성별 차이가 고려되지 않는다. 배런-코헨(2003)과 파우스토-스털링(Fausto-Sterling, 2000)의 연구에 따르면, 생물학적 성은 신체적 특징뿐만 아니라 호르몬, 유전자, 뇌 구조 차이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젠더 정체성과 행동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젠더 수행성이 지나치게 유동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개인과 사회의 정체성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젠더가 단순한 수행적 행위라면, 젠더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심리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의 일관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드레거(Dreger, 2008)는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If gender is seen as purely performative and fluid, this could lead to significant confusion in legal, medical, and social contexts”(Dreger, 2008: 145). 이와 같은 우려는 젠더의 수행성이 사회적 구성을 반영하는 유용한 개념이지만, 생물학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경우 지나치게 상대적이고 불안정한 개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섹스, 젠더, 성적 지향의 인과적 연속성 해체

버틀러는 생물학적 성(sex),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부정하며, 이 세 요소가 상호 연관된다는 전통적 관점을 비판한다. 심지어 생물학적 성도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섹스와 젠더의 구분 자체를 무효화한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마도 ‘섹스’라고 불리는 이 구성물은 젠더처럼 문화적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사실상, 섹스와 젠더는 전혀 구분될 수 없는 것으로 섹스는 이미 항상 젠더였을 것이다”(Butler, 1999: 11).

그러나 이 주장은 생물학적 성이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를 간과하는 것으로 비판받는다. 생물학적 성별은 단순히 사회적 담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리학적, 유전적, 심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요소이다(Moir & Jessel, 1992). 또한, 생물학적 성과 젠더, 성적 지향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 경험과도 배치된다. 만약 성적 지향이 단순한 사회적 구성물이라면, 개인의 성적 정체성이 임의적일 수 있으며, 이는 성적 자기 이해와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4. 정상 규범 해체로 인한 모든 일탈적 성적 행태의 정당화

버틀러의 젠더 이론은 정상성과 규범 개념 자체를 억압적 구조로 간주하며, 이를 문제시한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젠더 규범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수용할 것을 강조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사회적 윤리 기준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첫째, 모든 성적 정체성과 젠더 표현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극단적 사례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존 E. 시리(Seery, 2006)는 *Antigone's Claim*에서 버틀러가 근친상간 금기를 문제 삼으며, 전통적인 성적 규범의 해체를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버틀러의 논리는 근친상간 금기를 넘어 모든 성적 규범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Seery, 2006: 62). 둘째, 버틀러의 논리는 다양한 성적 행태(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윤리 기준을 약화시킬 위험성을 내포한다(Callis, 2009 ; Tweedy, 2010 ; Dell-Aversano, 2010).

이러한 점에서, 버틀러의 젠더 이론은 성적 자유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안정성과 윤리적 기준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젠더 연구가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사회적 윤리성과 개인의 정체성 사이의 조화를 고민해야 함을 시사한다.

V. 버틀러의 젠더 이론의 영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버틀러의 젠더 이론은 전통적인 성별 개념을 해체하고, 젠더 정체성을 수행적인 것으로 정의하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녀의 이론은 철학적,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이는 인문학과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대중 담론에서도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본 장에서는 버틀러의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젠더 수행성, 규범성 해체, 퀴어 이론, 그리고 인간 주체성의 개념이 가지는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젠더 수행성 이론과 그 한계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개념은 젠더를 단순한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으로 구성된 정체성으로 바라보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그녀는 *Gender Trouble*에서 “젠더는 특정한 행위의 반복을 통해 구성되며, 그 이면에 고정된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Butler, 1999: 33). 이는 젠더가 특정한 신체적 특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수행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몇 가지 한계를 내포한다. 첫째, 젠더 수행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생물학적 성별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생물학적 성별은 단순한 신체적 특성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Collins, 2003: 62). 연구에 따르면, 호르몬과 유전자, 뇌

의 구조적 차이 등은 젠더 정체성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젠더가 단순한 사회적 수행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입증되고 있다(Baron-Cohen: 2003).

둘째, 젠더 수행성 개념이 실천적 차원에서 적용될 경우, 개인의 젠더 정체성이 극도로 유동적인 개념이 되어 정체성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Dreger, 2008: 71). 만약 젠더 정체성이 수행적이라는 개념이 극단적으로 적용된다면, 개인의 성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법적, 심리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2. 규범성 해체와 그 사회적 영향

버틀러는 전통적인 젠더 규범과 사회적 구조가 권력과 억압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해체하려 한다. 그녀는 정상성(normativity) 자체가 사회적 강요이며, 젠더 및 성적 정체성에 대한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고 본다(Butler, 1999: xxviii). 그러나 이러한 규범 해체는 몇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첫째, 모든 규범이 억압적이라는 가정은 성급한 일반화일 수 있다. 사회적 규범은 단순한 억압적 구조가 아니라, 사회적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McIntyre, 2012). 특히 가족, 결혼, 부모 역할과 같은 전통적인 젠더 규범은 인간 공동체의 지속성과 유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규범 해체가 모든 형태의 성적 정체성과 행위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Seery(2006)는 버틀러의 *Antigone's Claim*에서 버틀러가 근친상간 금기(taboo)에 대한 재고를 주장하는 것을 비판하며, 이러한 논리가 윤리적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모든 규범을 해체하는 것이 단순히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3. 퀴어 이론과 성적 정체성 개념의 불안정성

버틀러의 이론은 퀴어 이론(Queer Theory)의 핵심적인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며, 성적 정체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관점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그녀는 이성애 중심적(heteronormative) 사회 구조를 해체하고, 다양한 성적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논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성적 정체성이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개념이 극단적으로 적용될 경우, 개인의 정체성이 지나치게 가변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성적 지향이 단순한 사회적 구성물이라면, 이는 개인이 사회적 환경에 따라 성적 지향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경험적 연구 결과

와 배치된다. 연구에 따르면, 성적 정체성은 단순한 사회적 압력의 결과가 아니라, 생물학적·심리적 요인 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Savin-Williams, 2017).

또한, 버틀러의 퀴어 이론은 법적·사회적 차원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완전히 수행적이고 유동적인 것이라면, 법적 제도(예: 성별 변경, 동성 결혼, 차별 금지법 등)는 개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예컨대, 법적 성별 이 완전히 수행적이라면, 개인이 자신의 성별을 수시로 변경할 권리를 가져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는 현재 젠더와 법률의 관계에서 중요한 논쟁을 형성하고 있다(Balkin, 1998).

4. 인간 주체성 개념의 모호성

버틀러는 인간의 주체성을 고정된 본질적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 으로 본다. 그녀는 젠더 정체성이 수행적이며, 개인의 자아(identity)는 규범과 수행의 산물이라고 주장 한다. 이는 데리다의 후기구조주의적 개념과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권력 이론을 반영한 것이 다(Gough, 2024).

그러나 이러한 인간관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인간의 정체성을 지나치게 사회적·문화적 요소 에 의존하는 개념으로 환원할 경우, 개인의 자율성과 주체성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만약 정체성이 완 전히 수행적이라면, 개인의 자기 이해와 존재의 본질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러한 문제는 실존주의적 인간관과 상충할 수 있다(Tizchang, 2024).

둘째, 인간의 정체성이 전적으로 사회적 구성물이라면, 개인의 경험과 자율성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 는가?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정체성은 유년기 경험, 신경학적 요인, 사회적 상호작용 등의 복 합적인 요소에 의해 형성되며, 단순히 수행적 행위의 반복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Baumeister, 1999).

버틀러의 젠더 이론은 젠더와 성적 정체성을 유동적이고 수행적인 개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학문 적·사회적 담론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의 이론은 문학, 철학, 사회학, 법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논의의 틀을 제공했으며, 퀴어 이론과 젠더 연구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젠더 수행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생물학적 성의 중요성을 간 과하고, 사회적 규범 해체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성적 정체성과 젠더 개념을 전적으로 사회적 수행의 결과로 보는 것은 심리학적, 생물학적 연구 결과와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결론적으로, 버틀러의 젠더 이론은 중요한 학문적 공헌을 했지만, 그 이론적 한계와 실제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VI. 버틀러의 젠더 이론이 영문학 연구에 미친 영향

버틀러의 젠더 이론은 1990년대 이후 영문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녀의 젠더 수행성 개념은 전통적인 젠더 이분법을 해체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는 문학 연구에서 젠더와 성적 정체성을 다루는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버틀러의 이론이 영문학 연구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1. 문학 정전에 대한 재해석과 비판적 시각의 확대

버틀러의 젠더 이론이 등장한 이후, 전통적인 문학 정전에 대한 재해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녀의 이론은 문학 텍스트가 단순한 미적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거나 해체하는 도구로 기능한다고 보았다.(Salih, 2007) 이에 따라 기존의 영문학 정전이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구성되었다는 비판이 본격화되었으며, 젠더 및 성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해석이 강조되었다.

페미니즘 문학 연구자들은 버틀러의 이론을 적용하여 전통적 문학 작품 속 여성 캐릭터의 역할과 젠더 수행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확대해 나갔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Twelfth Night*와 같은 작품은 남녀 간의 젠더 수행성을 전복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전통적인 젠더 정체성의 경계를 허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되었다(Smith, 2004).

또한, 20세기 영문학 연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했던 T. S. 엘리엇, 조지 오웰(George Orwell),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와 같은 작가들의 작품 역시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되었다. 예컨대, 엘리엇의 *The Waste Land*는 전통적으로 모더니즘적 실존의 위기를 탐구하는 작품으로 평가받았으나, 이후 연구에서는 남성성(masculinity)과 젠더 불안(gender anxiety)의 관점에서 해석되었다(Pondrom, 2005). 이처럼 젠더 이론은 기존 정전을 해체하거나 재해석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이끌었다.

2. 퀴어 문학 연구의 부상과 성적 정체성 논의 확산

버틀러의 *Gender Trouble*이 출판된 이후, 영문학 연구에서 퀴어 이론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장되었다. 퀴어 이론은 성적 정체성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기존의 규범을 비판하고, 성적 지향과 젠더 표현의 유동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문학 연구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반영되었으며, 동성애적 정체성과 퀴어 서사가 주요 연구 주제로 자리 잡았다.

버틀러의 이론은 오스카 와일드,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 제임스 볼드윈(James Baldwin)과 같은 작가들의 작품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명하는 데 기여했다. 예를 들어, 와일드의 *The Picture of Dorian Gray*는 전통적으로 도덕적 타락과 미학주의를 다룬 소설로 평가되었지만, 이후 연구에서는 동성애적 욕망과 젠더 수행성의 측면에서 분석되었다(Sullivan, 2003).

또한, 울프의 *A Room of One's Own*과 같은 작품도 퀴어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재해석되었다. 울프는 여성 작가들이 기존의 가부장적 문학 정전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그들이 자유롭게 창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과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Woolf, 1929, 3-5). 이러한 논의는 이후 퀴어 이론과 결합되면서, 젠더와 성적 정체성이 문학 텍스트에서 어떻게 수행적으로 구성되는지를 탐구하는 연구로 확장되었다(Sadjadi & Hojabri, 2019: 10-20).

3. 후기구조주의적 텍스트 해석과 젠더 수행성 분석의 확산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개념은 후기구조주의적 텍스트 해석과 결합하면서, 문학 연구에서 의미 생성의 방식 자체를 변화시켰다. 후기구조주의는 텍스트의 의미가 고정되지 않으며, 해석하는 독자의 위치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이론적 흐름이다(Derrida, 1976: 50-60). 버틀러는 이러한 후기구조주의적 관점을 젠더 개념에 적용함으로써, 젠더 정체성이 단일한 본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적 행위를 통해 반복적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Butler, 1999: 33).

이러한 개념은 문학 연구에서 캐릭터의 젠더 정체성을 분석하는 새로운 틀을 제공했다. 예를 들어,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ë)의 *Wuthering Heights*에서 히스클리프(Heathcliff)는 사회적 지위와 관계 맥락에 따라 전통적인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에서 수행적 정체성을 보인다(Bernabeu, 2021: 120-135). 연구에 따르면,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은 젠더 수행성 개념을 통해 사회적 규범을 무너뜨리며, 서사의 구조 자체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Newman, 1990: 1029-1035). 이러한 연구들은 젠더 수행성이 문학 속 캐릭터 정체성을 유동적이고 맥락적 요소로 분석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문학 연구의 정치화와 젠더 중심적 분석의 편향성

버틀러의 젠더 이론이 영문학 연구에 미친 영향 중 하나는 문학 연구가 점점 더 정치화되고 특정한 이념적 틀 속에서 해석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점이다. 젠더 수행성과 퀴어 이론이 문학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문학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식이 점점 더 이념적이고 규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젠더 이론과 퀴어 이론이 확산되면서, 문학 연구에서 특정한 관점이 절대적인 진리처럼 다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컨대, Diane Bell은 텍스트의 미학적 가치를 평가하기보다, 문학 작품이 젠더와 성적 규범을 얼마나 전복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문학 연구가 본연의 예술적 깊이를 상실하고, 특정 이념적 해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다(Bell, 1999: 120-135).

또한, Harvey와 같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학자들은 버틀러의 이론이 문학 연구에서 전통적인 가치와 윤리적 기준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Harvey는 문학이 단순한 정치적 도구가 되는 것은 문학 본연의 다층적 의미와 보편적 인간 경험을 탐구하는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Harvey, 2012: 100-115).

VII. 성경적 관점에서 본 버틀러의 젠더 이론 비판

버틀러의 젠더 이론은 전통적인 젠더 개념과 성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뒤바꾸며, 영문학과 인문학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녀의 젠더 수행성 개념은 젠더와 성 정체성을 생물학적 본질이 아닌, 사회적 구성물로 간주하며, 기존의 이분법적 젠더 체계를 해체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창조 질서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 이해와 상충하는 문제점을 다수 내포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버틀러의 주요 주장들을 중심으로 젠더 수행성 개념, 규범적 권위, 퀴어 이론, 그리고 주체성의 재구성을 성경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1. 젠더 수행성 이론과 성경적 성 역할

버틀러는 젠더를 고정된 정체성이 아닌, 사회적 규범에 따라 반복적인 행위로 구성된 수행적 개념으로 정의한다. 그녀는 젠더 정체성이 생물학적 성(sex)과 본질적으로 연관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 권력 구조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Gender Trouble*에서 “젠더적 표현 뒤에 진정한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젠더는 행위를 통해 구성된다”고 설명하며, 젠더를 유동적이고 비고정적인 개념으로 해석한다(Butler, 1999: 33).

그러나 성경은 젠더와 성 정체성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일부로 본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명확히 선언하며, 남성과 여자로서의 구분은 창조의 본질적 일부임을 강조한다. 또한 에베소서 5장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고유한 역할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속해 있음을 보여준다.

버틀리의 젠더 수행성 이론은 이 창조 질서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며, 남성과 여성이라는 고유한 성별의 중요성을 상대화한다. 그녀의 이론은 성별과 성 정체성을 사회적 규범의 결과로 환원함으로써, 창조주가 부여하신 인간의 본질적 차이를 왜곡한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남성과 여성은 단순히 사회적 기대에 따라 역할이 형성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유한 목적과 책임을 부여하신 창조물이다. 따라서 젠더를 단순히 수행적이고 유동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명백히 상충한다.

2. 규범적 권위에 대한 도전과 성경적 도덕 질서

버틀리의 논리에 의하면, 젠더와 성적 규범은 억압적 권력 구조의 산물(Butler, 1999: 25)이며, 이를 해체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다. 그녀는 성적 규범이 특정한 권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한다고 보며, 이를 해체함으로써 성적 자유와 젠더 해방을 추구한다(Butler, 1993: 95).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는 성적 규범과 도덕 질서는 인간이 만든 억압적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불변의 기준이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은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명시하며, 성적 행위는 결혼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성경적 성 윤리는 단순히 규범적 제한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삶을 보호하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이다.

버틀리의 주장은 성적 규범을 억압적 장치로 간주하며, 이를 해체하고 개인의 성적 자유를 강조하지만, 이는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적 질서를 거부하는 태도로 해석된다. 성경은 도덕적 질서가 인간의 삶을 보호하고 번영케 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를 무시하는 접근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과 사회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3. 퀴어 이론과 성경적 성 윤리의 충돌

버틀리는 퀴어 이론의 핵심 사상가로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고정된 것이 아닌, 다원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으로 해석한다. 그녀는 이성애 중심의 규범이 사회적으로 강요된 억압적 구조라고 비판하며,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젠더 표현을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성적 관계와 젠더 정체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마태복음 19장 4-5절은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결혼과 성적 관계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로마서 1장은 동성애적 행위를 “자연에 어긋나는 것”으로 규정하며,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명백히 상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버틀리의 퀴어 이론은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심지어 근친상간과 같은 비정상적 성적 행태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적 틀을 제공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성경적 윤리와 완전히 대립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도덕적 기준을 해체하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4. 주체성의 재구성과 성경적 인간관의 대립

버틀리는 인간의 주체성을 고정된 본질적 실체가 아닌, 사회적 규범과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간주한다. 그녀는 정체성이 사회적 관계와 규범에 의해 구성되고 변화한다고 주장하며, 전통적 인간관을 부정한다.

성경적 관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창 1:26-27), 그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본질적이고 변하지 않는 특성에 뿌리를 둔다. 성경은 인간이 사회적 구성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고유한 존재라고 강조한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선언하며, 인간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질적인 것임을 명확히 한다.

버틀리의 유동적 주체성 개념은 인간의 고정된 본질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며, 인간을 단순히 사회적 맥락의 산물로 환원한다. 이는 성경적 인간관과 충돌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고유성을 훼손한다.

VII. 결 론

오늘날 영문학 연구는 단순한 미학적 탐구를 넘어, 젠더, 권력, 사회적 규범을 재구성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버틀리의 젠더 수행성 이론은 젠더를 생물학적 성과 분리된 사회적 구성물로 보고, 반복적 수행을 통해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전통적 젠더 개념을 해체하고, 성적 정체성의 유동성을 강조하는 학문적 틀을 제공하며, 기존의 이성애 중심적 규범과 사회적 권력 구조를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젠더 이론은 성경적 창조 질서와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와 근본적으로 충돌하며, 성별과 성적 관계에 대한 전통적 윤리 체계를 흔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점점 더 탈(脫)성경적이고 상대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며, 성경적 세계관과 윤리적 기준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율적 인간과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젠더를 강조하며, 남성과 여성의 고유한 정체성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하는 문학 연구의 방향이 필요하다. 성경은 남성과 여성이 본질적으로 다르면서도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분명히 한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명확히 선언한다. 또한, 마태복음 19장 4-6절에서 예수님은 결혼의 질서를 언급하시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이를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젠더가 단순한 사회적 구성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의 일부임을 명확히 한다.

따라서 문학 연구에서도 젠더를 사회적 수행이나 문화적 산물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문학 속 젠더와 가족 관계를 탐구할 때, 성경적 가치관이 반영된 문학 작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C.S. 루이스(C.S. Lewis)의 *The Chronicles of Narnia* 시리즈나, 제인 오스틴(Jane Austen)의 작품들은 성경적 가치관에 기초한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문학 연구에서 윤리적 기준의 중요성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버틀리의 젠더 수행성 개념은 정상성과 규범 자체를 억압적이라고 간주하며, 이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도덕적 질서와 윤리적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인간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본다. 로마서 1장 24-27절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난 성적 행태가 결국 인간 사회를 타락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성적 윤리가 단순한 사회적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대적 기준임을 강조한다. 또한, 잠언 14장 34절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라고 말하며, 윤리적 기준이 사회적 안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문학 연구가 단순히 성적 자유나 규범 해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인간 본성과 윤리적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문학은 인간 존재의 의미와 윤리적 고민을 탐구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도덕적 가치가 없는 문학 연구는 궁극적으로 인간 사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위해 성경적 윤리를 반영한 문학 작품을 더 연구하고 분석하는 방향을 강화해야 하며, 기존의 문학 연구에서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명해야 한다. 또한, 문학 연구가 단순한 권력 비판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적 고민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문학 연구의 목적 역시 정치적 이념이 아닌 인간 본질 탐구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문학 연구는 점점 더 젠더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목적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문학의 본래 목적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고, 아름다움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전도서 12장 12-13절에서 “모든 것을 들었으니 결론을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학문 연구 역시 인간이 본래 가져야 할 삶의 목적과 연결될 필요가 있다. 문

학이 단순히 특정 이념을 전파하는 수단이 된다면, 문학의 본래적인 가치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

이를 위해 문학 연구가 특정 정치적 이념에 매몰되지 않도록 학문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문학의 미학적 가치와 인간 본질을 탐구하는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젠더 중심의 해석에만 집중하지 않고, 보다 다양한 철학적·신학적·미학적 관점을 포함하는 연구를 장려해야 한다.

버틀리의 젠더 이론은 젠더 개념을 확장하고 전통적 이분법을 해체하는 데 기여했으나, 그 과정에서 생물학적 성의 중요성을 배제하고, 윤리적 기준을 해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문학 연구에서도 나타나며, 문학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도구가 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문학 연구는 젠더 수행성 개념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간 존재의 본질적 의미와 도덕적 질서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신앙과 학문이 조화를 이루는 연구는 단순히 현대 이론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경적 가치가 문학과 문화 연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문학 연구는 단순한 이념적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성찰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성경적 가치관과 학문적 탐구가 조화를 이루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젠더 연구를 포함한 모든 문학 연구는 성경적 진리를 기반으로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성경적 가치와 윤리적 기준을 회복하는 것이 학문 연구의 올바른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Achebe, C. (1958). *Things Fall Apart*. London: Heinemann.
- Balkin, J. M. (1998). *Cultural Software: A Theory of Ideolog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Baron-Cohen, S. (2003). *The Essential Difference: Male and Female Brains and the Truth about Autism*. New York: Basic Books.
- Baumeister, R. F. (1999). *The Self in Social Psychology*. Philadelphia, PA: Psychology Press.
- Beauvoir, S. de. (2011) *The Second Sex*. Trans. Borde C. & Malovany-Chevallier, S. New York: Vintage Books.
- Bell, D. (1999). *Performativity and Belonging*. London: Routledge.
- Belsey, C. & Moore, J. (Ed.) (1997). *The Feminist Reader: Essays in Gender and the Politics of Literary Criticism*. London: Macmillan.
- Bernabeu, M. (2021). Catherine Earnshaw meets Katherine Lester: Revisioning the Brontë body by sustaining the self in William Oldroyd's *Lady Macbeth* (2016). *Brontë Studies*, 46(3), 203-214.
- Bhabha, H. K.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 Bloom, H. (1994). *The Western Canon: The Books and School of the Ages*. New York: Harcourt Brace.
- Brooks, C. & Warren, R. P. (1976). *Understanding Poetry*. Fourth Edi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Butler, J. (1993).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London: Routledge.
- Butler, J. (1999).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London: Routledge.
- Butler, J. (2000). *Antigone's Claim: Kinship Between Life and Death*.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Callis, A. S. (2009). Playing with Butler and Foucault: bisexuality and queer theory. *Journal of Bisexuality*, 9(3-4), 213-233.
- Dell-Aversano, C. (2010). The love whose name cannot be spoken: queering the human-animal bond. *Journal for Critical Animal Studies*, 8(1/2), 73-125.
- Derrida, J. (1976). *Of Grammatology*. Trans. Spivak, G. C.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Dreger, A. D. (2008). *Hermaphrodites and the Medical Invention of Sex*.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ates, H. L. Jr. (1988). *The Signifying Monkey: A Theory of African American Literary Critic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ilman, C. P. (2017). *The Yellow Wallpaper and Other Stories*. Mineola: Dover Publication.
- Gough, A. (2024). Cyborg subjectivities and liminal experiences. in *Gender and Environmental Education: Feminist and Posthuman Perspectives* (pp. 129-145). London: Routledge.
- Jameson, F. (1981). *The Political Unconscious: Narrative as a Socially Symbolic Act*.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McIntyre, A. (2012). *Virtue and the Ethics of Socie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illett, K. (1970). *Sexual Politics*. Garden City: Doubleday.
- Moir, A. & Jessel, D. (1992). *Brain Sex: The Real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New York: Dell.
- Morrison, T. (1993). *Beloved*. New York: Alfred A. Knopf.
- Newman, B. (1990). The situation of the looker-on: Gender, narration, and gaze in Wuthering Heights. *PMLA*, 105(5), 1029-1041.
- Pondrom, C. N. (2005). T. S. Eliot: The performativity of gender in The Waste Land. *Modernism/modernity*, 12(3), 415-432.
- Said, E. W. (1978). *Orientalism*. New York: Pantheon Books.
- Savin-Williams, R. C. (2017). *Mostly Straight: Sexual Fluidity Among Me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eery, J. E. (2006). Acclaim for Antigone's claim reclaimed (or, Steiner contra Butler). in Carver T. & Chambers S. A. (Ed.). *Judith Butler's Precarious Politics: Critical Encounters*. London: Routledge.
- Smith, J. (2004). *Shakespeare and Gender Trouble*. Oxford: Blackwell.
- Sullivan, N. (2003). *A Critical Introduction to Queer Theor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2011). Biblica.
- Tizchang, M. (2024). Gender, embodiment, and the possibilities of feminist phenomenology. *Occidental Studies*, 4(1), 23-45.
- Tweedy, A. (2010). Polyamory as a sexual orientation. *University of Cincinnati Law Review*, 79(4), 1461-1515.

Wellek, R. & Warren, A. (1949). *Theory of Literature*. New York: Harcourt, Brace.

Wilde, O. (1890). *The Picture of Dorian Gray*. London: Lippincott's Monthly Magazine.

Williams, R. (1977). *Marxism sand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Wood, W. & Eagly, A. H. (2012). Biosocial construction of sex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behavior.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6, 55-123.

영문학 연구의 반성경적 전환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분석

The Anti-Biblical Shift in English Literary Studies and a Critical Analysis of Gender Ideology

현 숙 경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논문초록

본 논문은 영문학 연구의 패러다임 전환을 중심으로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젠더 이론이 미친 영향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기존의 정전(canon) 중심 연구에서 후기구조주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비평 등의 비판적 이론이 등장하면서 문학 연구는 단순한 미학적 탐구를 넘어 사회적 권력 구조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gender performativity)' 개념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존 젠더 이분법을 해체하고, 성적 정체성을 사회적 수행의 결과로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젠더 수행성이 생물학적 성(sex)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정체성의 유동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젠더 개념의 무한한 해체가 전통적 도덕성과 규범성을 약화시키고, 문학 연구가 이념적 도구로 활용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논의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버틀러의 젠더 이론이 문학 연구에 미친 공헌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론적 한계와 실제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문학 연구가 미학적 깊이와 보편적 인간 경험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균형을 유지해야 함을 제안한다.

주제어: 젠더 수행성, 주디스 버틀러, 영문학 연구, 퀴어 이론, 젠더 이데올로기